



제08호 / '18.6.15(금)

지부교섭 속보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병휴직 기간 보장!
기본급 146,746원 인상!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mw.kr

여전히 갈길이 멀다

2차 제시안 나왔지만 의견차이만 확인

임금안 없이 나온 2차 제시안

9차 지부교섭이 14일(목) 15시 한온시스템에서 열렸다. 2차 제시안이 나왔지만, 임금안은 빠져 있었다. 지부가 지난주에 임금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임금안 없이 나머지 2개 요구안에 대해서만 제시안을 마련했다.

서 정한 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복직 후 정상 근로의 여부, 추가되는 입원 치료기간의 정도, 대체인력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② 개인 상병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른다.

노사공동위는 무조건 참여해야

<2차 제시안>

1. 2018년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 회사는 전국단위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중앙교섭에서 정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3. 상병휴직 기간 인정

① 개인 상병휴직(진단서 첨부)에 따른 병가휴직의 경우, 입원 치료기간까지 상병휴직을 인정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에

사측은 계속해서 노사공동위 참석에 소극적이다. 정책 협의기구 수준의 내용인데도 소극적인 건, 교섭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려고 시간끄는 것밖에 안된다.

상병휴직 기간 인정은 1차 제시안보다 약간 상회하는 내용으로 수정됐지만, 휴직기간 연장 여부를 회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측은 지부가 요구한 취지를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7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하여 7월 초에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부도 진전없는 임단투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조 일정에 맞춰 조정신청에 돌입한다.

차기 교섭은 21일 15시 대한이연에서 열린다.

휴직 연장여부를 회사가 결정한다?

사 : 연이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됐고, 지방선거도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설마 되겠어?’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사람 사는 세상사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게 어려웠는데 탄력받고 추진하지 않을까 한다. 반면에 너무 일방적으로 가면 한쪽으로 쏠리는 게 좋지 않기도 하다. 교섭도 오늘 9차까지 왔는데 조합 측에서 보기에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없어서 안타까울 텐데 회사마다 사정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번에 제시안 내겠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입장 고려해달라.

노 : 우리가 보기에 자유한국당이 몰락한 건 촛불의 힘이 아닌가 한다. 자유한국당이 안된 건 좋은데, 민주당 독식도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게 우리가 웃을 상황이 아니다. 추미에 대표는 복수노조법, 타임오프를 만들었다. 민주당이 친자본 성향을 띤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압승으로 이후 행보가 우려스럽다. 저녁이 있는 삶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질임금 확보가 안되면 저녁에 애들이랑 라면 끓여먹는 삶을 살라는 건지.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당이 놓친 것이, 최저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잔업하면 수당이 적어지는데 노동자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 압승이 마냥 좋을 수 없다. 오늘 임금도 제시하라고 했는데, 제시안 받아보겠다.

사 : 지난 차수에서 임금 언급했는데 오늘 임금은 준비 못 했다. 나머지 제시안 갖고 왔다.

노 : 제시안 내용 중 ‘중앙교섭에서 정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르도록 노력한다.’고 돼있는데 이걸 안된다. 중앙교섭 안 들어오는 사업장은 어떻게 한다는 건가?

사 : 중앙교섭 사업장은 당연히 따르는 것 아닌가. 안들어오는 사업장은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문구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노 : 중앙교섭 안들어오는 사업장도 들어와야 한다. 이걸

받을 수 없다. ‘노력한다’고 하는 건 안된다. 상병휴직기간 인정에 대한 건 우리도 토론해보겠다. 지금 정화하면 다시 안을 만들 수 있나?

사 : 많이 이야기하고 만든 내용이라 정회시간을 준다고 해도 수정안을 내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노사공동위는 어느 지부도 아직 합의된 게 없는 걸로 안다. 조합이 생각하는 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작은 회사는 걱정이 많다. 한번 들어가면 2단계, 3단계 갈 텐데 부담이다.

노 : 지역지부들은 다 들어올 거다. 회사가 현대차 눈치만 안보면 부담없다. 작은 회사 소외되지 않게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공동위 논의가 길어질 수도 있다. 중소기업체 소외되면 이 공동위 자체가 깨지는 거다. 이상적인 산별 체계를 만들면 좋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현실을 뛰어넘고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체 소외될 수 없다. 작은 사업장이 더 득될 것이다. 요구안 보면 분과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분과체계도 있으니 고려해서 논의해달라.

상병휴직 내용은 인정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 초과하면 복직 후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데, 사측이 결정하는 건가?

사 : 아무 근거없이 결정한다는 게 아니다. 만기 시점이 도래했을 때, 건강상태를 봐서 몇 개월 더 기다려서 완치된다면 연장할 수 있다. 의사 진단이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 기업 운영하면서 언제 복직할지 모르는데 계속 남겨놓을 수는 없다.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노 : 판단을 회사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 산재 휴직 1~2년 걸려도 다 대처하고 있지 않나. 휴직기간 임금 문제는 회사별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다. 전차보다 상황됐지만 핵심은 회사가 판단한다는 것이지 않나. 이걸 사측이 판단하는 구조라 우리가 요구한 것과 다르다. 차기에 수정안 내라.